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이제 교회력에서 가장 긴 오순절기에 접어듭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 모여 내 삶의 이정표 나누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5일(목)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장소는 무주구천동 일대입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 마친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전시중인 십자가를 분양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시십시오.

은혜받는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늦어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사는 눈으로만 나누어 주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강림절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가 인간 가족의 일원임을 기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십시오. 절망과 낙담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미얀마에 불어닥친 사이클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희망을 잃고 탄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이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박시내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김정섭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희진 박홍재 백묘현 윤미경 윤수진 이예정  
 이정규 이인섭 정한구 김주경 윤종권 안종일 정현주 김재홍 최희영  
 정은영 권미숙

**월정헌금:**

권미정 권혁순 박해경 김영한 이희균 김종문 지명주 하현철 최성애  
 문금석 박옥순 유증희 이재문 송의섭 윤성중 김윤정 이인웅 정두리  
 박범희 박미영 배재경 이수정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김주경 양옥진 정진경 배순미  
 무명4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해경 백혜숙

**100주년 기념헌금 :**

136명 : 16,805,000원  
 (100주년 헌금 누계 : 206,290,000원)

	장혜숙	장혜숙	김정섭	심교회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김명순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박옥순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송의섭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박효선
	박효선	허정운	임미심	최숙화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유영남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구성실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안홍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백혜숙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김명희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이증자
	이영란	박미영	야외	조항미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우리 어머니

-나희덕

자식이 너무 많으신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집부리고 나면  
웬지 미안해지는 우리 어머니

전쟁고아들이 자라서 자식들을 낳고  
전쟁 아닌 전쟁으로 삶을 꾸려나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따뜻한 등지가 되어주시는 분

용달차 운전하는 길천이가  
애인과 헤어져 위로받으러 찾아오고,  
시집살이가 힘든 금숙이가  
그 품에서 한참을 울다 가는 곳

놀고 있는 무성이에게  
보증을 서주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장가가는 용주가 지어준 옷 입으시고  
어머니 자리에 대신 앉아 웃고 계신 분

그 많은 자식들과 내가  
형제처럼 사는 세상 만드시려고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전령을 만난 듯 정성을 다하십시오. 날마다 악의와 탐욕의 쓴 뿌리는 뽑아내고,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마음이 늘 든든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힘써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입을 맞추는 세상을 열기 위해 땀흘리겠습니다.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 / 권혁순 집사	기도 / 장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연태호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황원순 집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인웅 문홍일 정경례 이영란 김진경
	헌금위원	윤석철 백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

1986년 7월에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공부하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 내가 외판 건물의 그림 앞에 앉아서 그것에 열중하려고 애쓰는 사이 많은 관광객 그룹이 지나갔다. 그들은 그림을 채 1분도 보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가이드들이 그것을 공홀에 찬 아버지를 그린 그림으로 설명했다. ‘탕자의 귀향’보다는 ‘공홀하신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했어도 얼마든지 될 뻔했다.

렘브란트가 아버지를 그린 방식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애정과 자비와 용서를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공홀의 사랑이 이토록 사무치게 인간적으로 표현된 일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이다. 가장 신적인 특성들이 가장 인간적인 몸짓과 관계 속에 포착되어 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 많은 부모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성경에 아바, 즉 자애롭고 자상하며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 자주 표현된다.

아바는 아주 친밀한 단어다. 가장 좋은 번역은 ‘아빠’다. 아바라는 말에는 신뢰, 안전, 당당함, 소속, 그리고 무엇보다 친밀함이 묻어난다. 흔히 아버지라는 단어에 뒤따라오는 권위, 권력, 통제의 뉘앙스는 없다. 아바에 암시된 것은 우리의 부모형제, 배우자, 친구, 연인에게서 오는 감싸주고 세워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친숙한 이름을 붙이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누리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 두려움이 없는 관계, 신뢰의 관계, 능력을 입는 관계다. 이 관계를 성령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의 부르짖음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서 솟아오르는 기도다(롬8:15, 갈4:6 참조). 그것은 하나님께 호칭을 붙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돌연한 깨달음이나 득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주장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도 보인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되 성성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다. 렘브란트 그림 속의 반겨 맞는 인물 속에서 나는 ‘아들의 목을 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을 어루만지고 자기 몸의 온기로 감싸며 본래 태어났던 태에 품는 어머니도 본다.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천막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한 그 옷자락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모성적인 특성을 느낀다. 그러면서 내 심장은 시편기자가 감동을 입었던 말씀으로 노래하기 시작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다(시91편).

<탕자의 귀향>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태로 귀향하는 것, 존재의 근원 자체로 귀향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에서 다시 날 것을 권고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다시금 메아리치고 있다. 여기서 내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빛으신 생명을 자신의 태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어머니이시다. 침침한 듯한 눈, 손, 옷자락, 등이 굽은 몸, 이 모두는 비탄과 그리움과 희망과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모성애를 보여준다.

공홀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들의 생명과 영원히 결탁시켰다는 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다. 피조물들에게는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자신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쪽을 거침없이 택하신 것이다. 이 선택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떠나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분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준비된 식탁에 함께 둘러앉기까지 그분의 기쁨은 온전할 수 없다.

탕자의 비유는 사랑을 말하는 이야기다. 그 사랑은 일체의 거부가 가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모든 거부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처음이자 영원한 사랑이다.